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영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 | | | | | | | |
|----|----------|----------------------------------|--------------|----------------------|----------|-------------|--------------------|
| 미사 | 주일 미사 |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 성사 | 고백 성사 | 미사 30분전 |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
| | 평일 미사 |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 | 유아 세례 | 2주일 전 신청 | | |
| 신심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지속적인 성체조배 | 병자 성사 봉 성체 | 2주일 전 신청 | 통신교리 - 전화문의 | |
| | 성령 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 | 혼배 성사 | 3개월 전 신청 | | |
| | 항심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 한국학교 |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 | | |
| | 하느님의 뜻영성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 | 토요일 오전 9:40-12:50 | | | |
| | 주일 학교 | 매주일 오전 11:00-12:15 | | | | | |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제 1독서] 이사50,4-7
[화답송] 시편22(21),8-9,17-18,19-20,23-24(◎2~)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비웃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 2독서] 필리2,6-11
[복음 환호송] 필리2,8-9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 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수난 복음] 마태26,14-27,66<또는27,11-54>

| | | | | | |
|----|--------|----|------------|------------|--------|
| 성가 | 8시 미사 | 입당 | 봉헌 210 214 | 성체 156 163 | 파견 122 |
| | 11시 미사 | 입당 | 봉헌 210 214 | 성체 156 163 | 파견 122 |

주일 전례 봉사

| 구분 | 주님수난성지주일(4월 13일) | | 성삼일(4월17, 18, 19일) | | | 예수부활대축일(4월 20일) |
|--------|------------------|-----------|--------------------|-----------|----------------|-----------------|
| | 8시 | 교중미사 | 성목요일 | 성금요일 | 부활성야 | 교중미사 |
| 미사해설 | 정스텔라(애리) | 이엘리사벳(자영) | 이엘리사벳(자영) | 전베로니카(진영) | 조레지나(선덕) | 권미카엘(창모) |
| 제 1 독서 | 전안드레아(덕천) | 정요한(석준) | 이바오로(명국) | 최다니엘(대연) | 1독서:허라우렌시오(순구) | 임루카(승원) |
| 제 2 독서 | 서테레사(춘애) | 전베로니카(진영) | 김안젤라(영선) | 서테레사(춘애) | 3독서:심헬레나(승화) | 손리디아(정옥) |
| 보편지향기도 | 독서자 | | 독서자 | 독서자 | 5독서:최분도(환준) | 독서자 |
| 수난복음 | 김안토니오(휘) | 이레이몬드(창용) | | 구미카엘(창희) | 7독서:이골롬바(정연) | |
| | 이바오로(명국) | 이베로니카(경란) | | 김안토니오(휘) | 서간:심미카엘(태규) | |

성지(聖枝)의 의미

몇 해 전에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다. 마침 성주간이 시작되는 성지 주일을 예루살렘 성지에서 지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고 감사하다.

오후 2시부터 셋세마니 동산 뒤편, 예수님이 나귀에 오르신다는 ‘벧파게’에서 예루살렘성의 ‘사자문’ 안쪽까지 성지 주일 행렬을 한다.

그동안 성지 주일은 엄숙하고 경건한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지에서 맞이한 성지 주일은 많이 달랐다. 성지에서의 입성 기념식은 아주 흥겨운 분위기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은 저마다 가지를 손에 들고 각자의 나랏말로 성가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행렬을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행렬을 하다보면 정체가 생기고, 정체 때문에 서있는 시간이면 환한 얼굴빛으로 다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를 지르곤 하는 것이었다.

가장 거룩한 성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의 경건함이나 거룩함은 그곳에 없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연히 그런 왁자지껄하고 신이 나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 들였다.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고, 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노래하면서 환영했다.

그분을 자기 삶을 살피시는 주인으로, 늘 섬기면서 살겠다는 약속으로 임금님을 맞아들인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심을 기뻐서 소리치고 노래 불렀다. 마침내 하느님 나라가 임하실 것임을,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뻐하며 하느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오늘 성지 주일을 지내는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한다. 오늘 전례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젊은 예수가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알기에 나는 그분을 왕으로, 내 삶의 주

인으로 섬기기로 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전례에서 사용한 나뭇가지인 성지(聖枝)를 집에 있는 십자가상 뒤에 걸어놓는다. 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 들였다는 표지인 것이다.

한 해 동안 십자가상 위의 성지를 볼 때마다 나의 고백을 되새기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미사 중에 듣는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수난기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분명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목 놓아 환영하던 그들이었을 것이다. 왕으로 환영하던 이들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다른 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옳게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죄를 저질러 주님을 배반하곤 한다. 어쩌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늘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로 했음을…….

이재학 안티모 신부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 구역별 부활절맞이 대청소(4월 13일) | |
|-----------------------|-----------------------|
| 1 구역 | 친교실 및 무대 |
| 2 구역 | 친교실 화장실(남,여) |
| 3 구역 | 제의방 및 통로 |
| 4 구역 | 주차장(정문 및 후문) |
| 5 구역 | 야외 성모상과 성김대건 동상 주변 정원 |
| 6 구역 | 대건회관 정원 및 제 1회의실 |
| 7-1 구역 | 성체조배실 및 제 2회의실 |
| 7-2 구역 | 교육관 1층 및 2층 |
| 8-1 구역 | 교육관 정문 밖 주변과 차고 쪽 |
| 8-2 구역 | 유아실 두 곳 및 통로 |
| 9 구역 | 성당 안 1, 2층 |
| 10 구역 | 교육관과 성당 사이 정원 |
| 뜨락회 | 친교실 밖 통로 및 주방 |

| 성목요일 감실조배 각 구역별 시간표(4월 17일 - 4월 18일) | | | |
|--------------------------------------|-------------|--------|-------------|
| 1 구역 | 10PM - 11PM | 4 구역 | 5 AM - 6 AM |
| 2 구역 | 11PM - 12AM | 3 구역 | 6 AM - 7 AM |
| 뜨락회 | 12AM - 1 AM | 10 구역 | 7 AM - 8 AM |
| 8-1 구역 | 1 AM - 2 AM | 9 구역 | 8 AM - 9 AM |
| 8-2 구역 | 2 AM - 3 AM | 7-1 구역 | 9 AM - 10AM |
| 7-2 구역 | 3 AM - 4 AM | 5 구역 | 10AM - 11AM |
| 6 구역 | 4 AM - 5 AM | | |

말씀의 향기

진정 필요한 첨가물

칠년 전쯤, 헤이리 예술인 마을에서 보았던 붉게 녹슨 철판으로 지은 건물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건물에 그런 소재가 사용 된 것이 신기했고, 알아보니 그 철판은 처음에는 녹이 슬다가 표면에 입힌 화학첨가물이 철판을 보호하여 험한 날씨에도 견딘다고 해서 이름이 내후성강(耐候性鋼)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매력적인 초콜릿색으로 변해간다는 것 또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 나이 탓에 그 철판이야말로 멋진 노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웠나 봅니다.

제게 필요한 첨가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경제력, 건강, 가족, 이웃 등이 떠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노인이 되어 가난하고 몸이 아파도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제가 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퇴근길 지하철 역 근처에서 만난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옛이나 쌀강정, 강냉이 등을 비닐 씌운 상자 위에 늘어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팔십 세 쯤 되어 보였는데, 여쭙 보니 칠십 세라 했습니다.

허리가 굽었는데도 눈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에 나와 계셨지요. 저는 할머니에게 옛이나 강정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근처에서 김밥이나 과일 등을 사다 드리거나, 추울 때는 제 허리에 붙이는 핫팩을 나눠드리곤 했는데 그분은 그냥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좌판에 있는 것을 손에 잡히는 대로 주셨지요. 조금 친해져서 가족 관계를 물으니 딸 하나가 멀리 사는데, 서로 바빠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며칠 동안 안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게 물건을 모두 뺏겼다가에 마음이 너무 아파 제 수중에 있는 것을 모두 드렸더니, 그날도 담례로 대추 몇 알을 주셨지요.

할머니와의 친분관계가 저의 은퇴로 끝이 났어도 아직까지 그분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랜 고생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기보

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많이 가졌는데도 저의 내면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답을 엿보고 싶어서 그분에게 다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걱정과 두려움은 이미 가진 첨가물로도 불안해하며 많이 쌓아 놓아야 한다는 욕심에서 왔음을,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제게 진정으로 필요한 첨가물은 무엇보다도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황영애 에스텔
상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 전례상시

성 금요일에만 미사가 봉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 년 중 성 금요일에만 미사가 봉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사의 본주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다는 뜻에서입니다.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날로서, 미사는 드리지 않고 '말씀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 을 거행합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넷째 계명

가톨릭전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탈출 #20:12)

넷째 계명의 중요성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3 계명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고, #4-10 계명은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십계명의 둘째 부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4-10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넷째 계명입니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맺게 되는 사회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사회적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주고 길러 주었으니,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넷째 계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넷째 계명의 근본정신에는 못 미치는 부족한 이해 방식입니다. 넷째 계명은 십계명 전체가 의도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정 안에서 교육되고 실천되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정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족들간에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가정이 하숙집으로 전락한지 오랩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일했고, 부인도 화장품 판매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런 고생 끝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부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집은 마련했는데 그 집에 살 식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돈을 버는 데에 몰두하는 동안 자녀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해 봤고, 아이들은 방황하고 가출해 버렸습니

다. 부부 사이에도 불화가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나 알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성화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재산이나 건강(=세상의 가치관)보다 가정의 성화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유아세례를 주고, 주일학교에 보내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하고, 첫영성체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기 가정”만 챙기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주변의 다른 가정들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따라서 다른 가정들에 대한 존중과 돌봄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 가정에서 그 구성원들은 청소년이나 노인, 병자,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도움을 베풀지 못할 처지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그 사회에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줄 의무가 돌아간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08항).-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 날짜 | 지향 | 봉헌자 |
|----------|--------------|------------|
| 4월 13일 일 | 연 정벤자민(대업) | 정데레사(혜경) |
| | 연 이마르코(재상) | 가족 |
| | 연 윤바오로(광의) | 가족 |
| | 연 이케네스(상열) | 가족 |
| | 연 이스테파노(상준) | 뜨락회 |
| | 연 송소피아(성은) | 안마리아(은순) |
| | 연 김중화 | 정데레사(혜경) |
| | 연 이성원 | 정데레사(혜경) |
| | 연 어머님 기일 | 임루시아 |
| | 연 전동한 | 이마리아 |
| | 연 박마리아(순이) | 장루시아 |
| | 생 유데레사 | 윤사비나 |
| | 생 이토마스(동식) | 이토마스(환) |
| | 생 원젬마 | 찬미성가대 |
| | 생 김수산나(미라)괘유 | 김크리스티나(관숙) |
| | 생 정피터/제이미결혼 | 김크리스티나(관숙) |
| | 생 손자손녀들 | 박데레사 |
| | 생 송미카엘(인근) | 송아가다 |
| | 생 소렌과 자녀들 | 박올리안나(경숙) |
| | 생 조베드로/요셉 | 조데레사 |
| | 생 조야고보/김영호 | 조데레사 |
| | 생 김요세피나(경자) | 윤루시아 |
| 4월 15일 화 | 연 최베드로(휘종) | 가족 |
| | 연 이스테파노(상준) | 가족 |
| 4월 16일 수 | 생 최야고보(진우) | 최베네딕타(수영) |
| 4월 17일 목 | 연 이스테파노(상준) | 가족 |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 구분 | 8시 | 11시 | 영어미사 | 합계 |
|--------|-------|---------|---------|------------|
| 미사참석인원 | 83 | 212 | 35 | 330 |
| 헌 금 | \$600 | \$1,107 | \$37.25 | \$1,744.25 |

< 교무금 > \$3,026

김휘(1-3) 전숙희(4) 김순이(4) 김관숙(4)
 채용분(4) 송분학(5) 남금지(4) 김상실(5-6)
 최대연(1-3) 조진행(4) 김영길(3-4) 이정숙(3-4)
 이병열(4) 황현숙(3-4) 이명란(4) 조승구(4-5)
 김정복(4) 전문자(4) 김옥녀(4) 육승주(4)
 정진희(4) 천종욱(4) 임윤택(4) 김용식(4)
 이선희(4) 허석진(1-4)

< 성소후원금 > \$120

전숙희(4) 김순이(4) 채용분(4) 송분학(5)
 정진희(4) 이명란(4) 김정복(4) 임윤택(4)
 이선희(4)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박영실 \$100

< 부활초/꽃봉헌 >

임윤택 \$100

~~~~ 오늘 간식은 김젬마/팽데레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파스카 성삼일 전례

- \* 4월 17일(목) :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
  - \*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 \* **수난감실 조배(주보 3면 참조)**
- \* 4월 18일(금) : 주님 수난예식 저녁 8시
  - \* **생지복구를 위한 헌금**
  -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 \* 4월 19일(토) : 부활성야 미사 저녁 8시
  - \* **부활성야 헌금**
- \* 4월 20일(일) : 주님부활 대축일미사 오전11시
  - \* **오전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 주일학교 합동미사
  - \* 각 구역별 음식 바자회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Rice Bowl 봉헌 : 성당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부활봉성체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구역별 부활맞이 대청소 : 4월 13일(오늘)

- \* 주보 3면 참조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구역장회의 : 4월 13일(오늘) 대청소 후 107호
- \* 골프대회준비모임 : 오늘 교중미사 후 203호실
- \* 서예교실 : 4월 1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
- \* 독서클럽 : 4월 1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
- \* 사진동호회 : 4월 27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 일시 : 4월 24일(목) 오후 4시
-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4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3-4장**

|        |               |           |
|--------|---------------|-----------|
| 8-1 구역 | 4월27일(일) 미사 후 | 교육관 107호실 |
| 9 구역   | 4월26일(일) 6시   | 정승철안드레아택  |

◆ 주일학교 여름캠프(친교실에서 접수)

High school : 7월 27일 - 7월 30일  
Jr. High : 7월 30일 - 8월 1일  
장소 : <http://www.goldenvalleycamp.org/>

◆ 청소년 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 4월 26일(토) 12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 Oakland  
접수 : 8시/교중미사 후 친교실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00을  
트라이밸리 성당 성전기금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다음주 Hair Cut 봉사는 부활절인 관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구역장 회의 후 Hair Cut 봉사가 있습니다.

◆ FIAT 장학금 신청

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고등학교 9-11학년)  
마감 : 5월 31일  
문의 : [fiat@fiat.org](mailto:fiat@fiat.org) 714-772-3995(ext.106)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 주일학교 부활절 달걀 장식  
일시 : 4월 19일(토) 11시~1시 장소 : 친교실
- 4월 20일 : 부활절 합동미사(영어미사 없습니다.)

**안국학교 소식**

- 4월 19일 : 부활 방학
- 4월 26일 : 청소년 기금마련 골프대회
- 5월 10일 : 북가주 협의회 주최 꿈나무 예술제